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주체혁명의 진군길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긴 2015년을 보내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6년의 총진군길에 들어섰다.

2015년은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떼뿔이 들어설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학의 모든 교원, 연구사들은 첫시작부터 기세좋게 내달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훌륭한 교육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지난해 대학에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교육사상을 높이 받들고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그에 맞는 교수방법을 창조하여 학생들이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알고 더 잘 활용해나갈수 있게 하였으며 강의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림으로써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정연한 원격교육체계를 세운데 기초하여 원격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 수준을 높여 전국 대학의 앞장에서 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실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평양시버섯공장의 총공정설계로부터 시작하여 내열성수지병에 의한 버섯재배방법을 확립하고 대용기질에 의한 버섯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년초에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으며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발파가스중화제생산공정을 완비하고 현실에 도입함으로써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를 비롯하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남새농사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와 관련된 수십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도입하여 지난해 6월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참가한 교원, 연구사들은 사적물보존과 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하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대고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간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현실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많은 해결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지난해 5월 대학에서 조로친선의 해를 맞으며 로씨야의 어학자들과 공동학술토론회가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법률, 문학, 수학, 물리 등 부문별학술토론회들이 열리였으며 8월에는

《과학발전과 문명국건설》이라는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과의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세계1류급대학으로 자라난 대학의 발전모습과 수준을 잘 보여주었으며 교원, 연구사들속에서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발명가메달과 증서를 수여받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 대학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1류급대학으로 빛내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백두의 념과 기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 높은 교육과학연구성으로 내 조국을 빛내이려는 교원, 연구사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대학사업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가르치심을 주시고 우리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귀중히 여기시여 분에 넘친 감사를 보내주시었으며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천만산악도 두렵지 않고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며 김일성종합대학창립 일흔돛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 강화발전되어온 김일성종합대학의 자랑스러운 70년 력사를 더욱 빛내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대학의 모든 교원, 연구사들은 교육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앞장에서 해결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며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모든 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들로 키워내야 한다.

소립자와 우주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랩톤립자호상작용에 미치는 스핀편극효과와

우주팽창에 대한 이론을 양자마당론적으로 해석하며 상함수가 다항식인 경우 진동적분을 평가하여 비선형방정식에 응용하며 부분밀기와의 위상공액성의 필요충분조건을 밝히는 문제를 비롯하여 기초과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는 연구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량자암호통신기술과 색소증감형태양전지의 빛전환효율과 출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농작물의 1대잡종 2계법의 확립과 여러가지 스트레스견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주요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기간부문과 경공업, 농업, 건설부문 등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넣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김일성**종합대학이 앞장에서 나가야 한다.

대학에서는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전체 교직원, 학생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1류급대학으로 빛내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프락에 이어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고 대학창립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과 대학의 교육과학연구사업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일군들은 교직원, 학생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고 대학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는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어야 한다.

교원, 연구사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눈부신 과학기술성으로 강성국가건설을 떠밀어나가며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각자가 되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대학안에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교직원, 학생들이 건전하고 고상한 혁명적생활기풍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대학앞에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수행해나가는데서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